



HOLY MISSION STORY 거룩한 사명



거룩한선교이야기 · HolyMStory



세계선교사연합회
The World Missionary Federation

Holy Mission Story • 3400 W. 6th St. #202 Los Angeles, CA 90020 • T. (213)559-7500 • info@holymstory.com

제3호 | 2025년 1월 15일

www.holymstory.com

생활선교·경제공동체·IT선교

발행인 신년사

주후 2025년 시대전환기의 벽두에 서서



발행인
김재울 박사

2025년은 Beta세대(2025-2039)의 시작이다. 지난 15년간 태어난 Alpha세대(20억)를 떠안고, 또다른 15년(21억명 예상)을 맞이하는 첫해이다. 베타세대는 그 부모가 MZ세대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기술혁명과 환경문제라는 두 시대적 키워드를 안고 태어나 22세기까지를 살 세대가 된다는 뜻이다.

2025년은 또한 시대전환기의 첫해가 된다. 이유는 AI로 불리는 인공지능의 출현과 활용 영역의 증대와 그 영향으로 겪을 변화가 상상이상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4차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산업영역에서 뿐아니라 인간의 삶
(2면에 계속)

악마의 바람, 불타는 로스앤젤레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LA 산불 이재민 돕기 앞장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남가주호남향우회 추모헌화대 설치

임마누엘 부흥운동 선언

세계선교사연합회

대표회장 정성업 목사 / 이사장 송영우 목사

발행인: 김재울 목사
이사장: 송영우 목사

사 언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17:17)

사 호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사명선언문

진리 수호의 사명을 다한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한다.
선함 추구의 사명을 다한다.
교회 세움의 사명을 다한다.
차세대 선교 사명을 다한다.

차 례

종합 뉴스	P.1-5
오피니언	P.6-7
교회와 선교	P.7-8
신앙과 영성	P.9-12
사회와 생활	P.13-14
도산신보	P.15
신용사회	P.16

Emmanuel University
Academic Program
Master of Divinity (M.Div) 목회학 석사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기독교 상담학 석사
Doctor of Christian Counseling 기독교 상담학 박사
전학 및 입학 상담, SEVIS I-20
www.emmanueluniversity.org
3400 W. 6th St. #200, Los Angeles, CA 90020
213-674-7850
emmanuelu314@gmail.com

Go to 1 "Galile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Galilee School of Theology
갈릴리 신학 대학원
Master of Divinity (M.Div) - 목회학 석사
Master of Sacred Theology (STM) - 신학석사
Doctor of Sacred Theology (STD) - 신학박사
신입생 입학 및 전학 가능, SEVIS (I-20) 인가
www.gstla.com/gstlaca@gmail.com
TEL: 213-746-1004 / FAX: 213-746-5004
255 S. Hill St. #401, Los Angeles, CA 90012

나성소망교회
담임 김재울 목사
213-550-7377
255 S. Hill St. #401 LA, CA 90012

(1면에 이어서)

을 형성하는 직업과 문화생활 그리고 '수익창출의 구조변화'를 통해 경제활동의 개념변화까지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곧 인간 생존과 삶에서 '개념과 인식'의 영역이 더 확대되어야 하는 시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새 문화에 대한 공부와 계속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여기에 지구온난화와 그 영향으로 겪는 지구환경재해의 엄청난 공격도 예비하고 극복해야하는 숙제도 떠안은 시대 전환기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뉴노말', 새로운 일상이 '시대전환'으로 그려질지는 미쳐 깨닫지 못하고 기성세대에 다가와 있는 것이다.

이미 도래한 '시대전환기'에는 영향하는 것들이 있고,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해야할 일들이 있다. 먼저는 기술의 발전과 그 영향으로 주어진 경제환경의 변화, 그리고 제도의 변화 추동력으로서의 사회문화 변화와 정치력의 변화, 그리고 새언어와 커뮤니티 활동, 즉 새로운 소통 공동체의 출현과 다양한 참여에 의한 융합이 새로움을 상징하며 변화를 선도할 것이다. 이 융합이 또한 역설적이게도 시대와 산업계에 혁명으로 명명되며 영향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기술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혁신이 선제적으로 필요하고, 경제생태계의 변화에 적응하는 제도개혁을 위한 정치력도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도 심리학적 예비와 경제환경과 문화충격의 예방이 새로운 공동체의 활동과 새로운 소통으로 예비되고 극복되어야 생존과 삶이라는 생명성을 담보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 언어가 필요로 한데, 그것은 바로 two reality, 즉,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표현했던, MZ와 Alpha세대를 관통했던, 삶의 정의를 이제 'third reality', 제3의 실제, 즉,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가 AI로 '융합된 실제', 'Newality'로 이야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새로운 실제', '융합된 실제' 제3의 현실세계는 '가상세계의 현실세계로의 침략과 지배'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싶다. 이 '제3의 실제하는 현실'은 산업의 세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업, 비즈니스의 세계도 바꾸고, 사회적 관계와 문화에 해당하는 커뮤니티(공동체) 생태계도 바꾸고 있다. 실례로 소통의 장소와 도구가 비즈니스화 사업화 즉 경제활동과 이익의 창출의 장과 도구가 된지 오래이다. 또한 가상화폐가 이미 실제 화폐의 기능과 가치를 담은지 오래이고, 이의 매매는 이익추구의 시장이 된지 오래이다.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3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해야만 하는 Newality, '새

실제', '새현실'시대를 맞이하여, 공부하여야 할뿐아니라, 또한 융합적사고와 융합된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영적세계와 현실세계의 융합, 즉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꼭 필요한 의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메시지라 하겠다. 더욱이 '가상세계의 현실세계로의 침투'라는 '제3의 현실'로 일컬어지는 'AI로 융합된 새로운 시대전환기적 삶'을 살아야 하는 오늘날엔, 교회의 영적세계 개발과 소통에서 뿐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현실세계로의 현현에, 그의 역사에, 그의 나라의 도래와 실현에 이해의 영역을 넘어선 매우 큰 영향을 불러올 것이라 확신한다.

〈발행인 김재울 박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55대 회장 진건호 목사 취임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진건호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는 12월 15일 일요일 오후 5시 벨리데교회(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에서 200여 명의 교계 인사들을 모시고 '제55대 회장단 취임 감사예배'를 가졌다. 제55대 회장단은 55대 남가주교회 협회장으로 선출된 진건호 목사(하튼교회)와 그 외 명예회장 진동은 목사, 수석 부회장 서사라 목사, 상임 이사장 모종태 장로, 운영 이사장 엘리야 김 목사로 구성되었다.

최문섭 목사의 찬양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에서, 서사라 수석 부회장의 기도, 음악분과위원장 김숙영 교수가 지휘하는 KCBC 합창단의 특별찬양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 건국회 총재 진동은 목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진 목사는 설교에서 '다윗이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아 골리앗을 물리치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을 바치면

(3면에 계속)

(2면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어떤 상황에서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요지로 말씀을 전했다. 고귀남 목사(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대표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는 상임이사회 부이사장 김재울 목사의 사회로 진행하였으며, 제55대 회장 진건호 목사, 수석부회장 서사라 목사, 상임 이사장 모종태 장로, 운영이사장 엘리야 김 목사의 취임 인사가 있었다.

축사는 한교총 대표회장 장종현 박사를 대신하여 진동은 목사가, 이어 미주 조선일보 대표 이기욱 장로, 우정의 종보전재단 이사장 김영균 목사, 남가주장로협의회 회장 서경원 장로, 안산 섬기는 교회 김종수 목사의 영상 축사가 있었다.

이사효 전도사의 축가에 이어 취임패 증정 순서에는 진동은 총재가 진건호 목사를 MOU와 함께 미주 지부장으로 임명하여 취임패를 수여하였다. 진건호 회장은 수석부회장 서사라 목사에게 취임패를, 상임이사장 모종태 장로와 운영 이사장 엘리야 김 목사에게 감사패를 각각 증정하였다.

오승은 목사(상임이사회 서기)의 식사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베푼 만찬에 참여하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 순서를 맡은 분들이 한결같이 교협의 통합을 바라는 기도와 발언을 하여 통합의 의지를 나타내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2025 신년 조찬기도회 개최

2025년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조찬기도회 및 신년하례식이 1월 11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 멜리테 교회에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의 회원 목사들과 내외빈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거행되었다.

1부 예배순서에는 엘리야김 목사의 인도로 이계선 목사의 기도예에 이어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고귀남 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신년 기도회는 6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였는데 1. ‘남가주 교협 하나됨을 위하여’ 송영우 목사, 2. ‘남가주 지역의 한인교회의 회복과 성장을 위하여’ 안선신 목사, 3. ‘남가주 지역 화재 진압 복구와 이재민을 위하여’ 피터 위 목사, 4. ‘남가주 지역 한인들의 기업과 일터의 보호하심을 위하여’ 모종태 장로, 5. ‘우리 조국 민주화와 안정화를 위하여’

오승훈 목사, 6. ‘미국의 위정자와 동성애와 낙태 반대를 위하여’ 김재울 목사가 기도하였다.

2부 신년하례회에서는 박영준 목사가 사회를 맡았다. 남가주교협 회장 진건호 목사는 새해인사 및 환영사에서 첫째는 Humility 겸손, 둘째는 Obedience 순종, 셋째는 Thanks 감사를 새해에 교인들이 해야 할 덕목으로 꼽고, 첫 글자를 따서 H.O.T.를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는 신년메세지를 전했다.

이어진 축사에는 미주크리스찬대학교 총장 엘리야김 목사,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장 서사라 목사, 남가주장로협의회 서경운 장로, 재미한국노인회 박건우 회장이 참여하였다. 남가주여성목사회 김인숙 목사의 식사기도로 모든 순서를 폐하고, 조찬으로 떡국을 함께 나누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시37:5~6)

축신년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진 건 호 목사

310-706-7721

축신년

예수사랑세계선교회

회장 조 병 국 목사

213-445-2488

악마의 바람, 불타는 로스앤젤레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LA 산불 이재민 돕기 앞장서다



로스앤젤레스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극도로 건조한 날씨와 ‘악마의 바람’으로 불리는 강풍으로 인해 쉽게 진압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화재로 수십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현재 16명이 숨진 가운데 소방관들은 불길을 잡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번 화재는 9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났는데, 케네스, 리디아, 아처, 우들리, 올리바스, 허스트, 섀넌 등 7개 지역은 조기 진화되었으나, 팰리세이즈와 이튼 2개의 지역은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다. 가장 심한 팰리세이즈 지역은 LA 역사상 피해가 가장 막심하여, 현재까지 2만 3,000에이커가 넘는 토지를 휩쓸었다. 이튼 지역도 심하여 패서디나 북부 지역 1만 4, 117에이커를 태우며 계속 확산되고 있다.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로 약 1만 채의 건물과 주택이 소실되었다. 두 지역은 안정적이고 고가의 주택들이 자리잡은 곳으로, 보험사 피해액이 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이튼 산불은 파나데나 북부 알타데나 지역으로서 상당한 수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한인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재민들을 돕고자 한인 단체들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협’)는 LA역사상 최악의 산불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고자 지난 13일 남가주교협의 봉사기구인 <남가주기독교사회봉사센터> 산하에 <LA산불이재민회복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소속 한인교회와 사회단체 및 시민들의 후원금과 물품을 기부받아 산불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회복지원본부장에는 교협 회장 진건호 목사가 맡아 지휘하고, 후원금 수령 및 물품기부, 재난현장 전달 등의 실무는 사회봉사센터장 송영우 목사가 맡아 긴급구호와 이재민 지원을 총괄하기로 했다.

교협은 먼저, 산불로 인한 공기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재민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K-95 마스크와 덴탈마스크를 남가주 교협에서 5만 개, 세계선교사연합회에서 5만 개, 글로벌 블레싱미션에서 5만 개를 받아 대량으로 확보했고, 글로벌메디칼선교회(대표 김인철 목사)에서 신발과 위생장갑을 전달받았다. 또한 예수사랑세계선교회(대표 조병국 목사)에서 담요 100개를 기부 받아 이 모든 물품들을 이재민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LA지역 산불 피해는 피해 규모

가 워낙 커서 이재민들이 참사에서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에, 교협은 재난회복 지원을 위해 교협 소속 교회들과 단체들의 후원들을 총괄하여 후원을 접수할 <후원물품접수팀>, 기부금을 접수하는 창구로 <기부금접수팀>, 소속 한인교회들과 시민들의 현장방문을 주선하기 위한 <현장방문지원팀>, 그리고 교협소속의 교회와 연방정부와 주정부, LA시, 기관, 사회단체들과의 역할 분담과 재난회복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대외협력팀>을 구성하고, 교협의 조직과 역량을 쏟아부어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재난회복을 위한 디아코니아(공헌봉사) 선교를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협은 <LA산불이재민회복지원본부>를 북미주의 4,000여 한인교회들이 금번 LA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을 도울 대표창구의 역할을 자임하고, 한국 본국의 시민구호단체 및 지자체들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후원을 이끌어내어,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한 동포와 미주 시민들의 고통에 상호연대하여 돕는 한미협력 긴급구호 모델과 후원계획을 구상하고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기부금 및 후원물품 접수 안내

접수처: LA산불이재민회복지원본부

주소: 3400 W. 6th #202

Los Angeles, CA 90020

연락처: 213-559-7500

후원금 은행명: US Metro Bank

계좌명: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Southern California

계좌번호: 32008303

(Donation Tax Free ID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남가주호남향우회 추모헌화대 설치 정치권은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기를 당부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7분께 181명을 태운 타이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조류 충돌이 발생해 랜딩기어를 내리지 않은 채 착륙하여 돌진하고 결국 활주로를 이탈해 외벽에 충돌한 뒤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79명이 숨지고 2명은 다쳤다. 이번 사고 생존자는 수색 초기 기체 후미에서 구조한 객실승무원 2명에 불과했다.

사고 이후에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을 제조한 미국 보잉의 주가가 2% 넘게 급락했다. 장 초반 한때 5.8%까지 떨어졌지만, 소폭 반등하며 하락폭을 줄였다. 보잉은 올해 1월 알래스카항공 소속 여객기의 비상구 덮개 이탈 사고 이후 신뢰도 하락 위기를 겪어왔다.

사고의 원인이 보잉 기종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역시 지난 12월 29일 항공전문 매체인 심플 플라잉에 따르면 전날인 28일 오슬로 가르데르모엔 공항을 출발해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으로 가던 보잉 737-800 기종의 KLM 여객기가 오슬로 토르프산데피요르드 공항에 비상착륙했다. 앞서 지난 10월 11일에는 에어인디아익스프레스 소속 보잉 737-800 기종 여객기가 이륙 직후 랜딩기어 문제로 이륙 후 2시간 반 만에 회항했다.

이 밖에도 투이 항공 소속 보잉 737-

800 여객기가 지난 7월 이륙 직후 랜딩기어가 접하지 않는 문제를 겪으면서 출발지인 영국 맨체스터 공항으로 복귀하는 일이 있었다. 또한 영상에 나오는 사고 상황을 보면 사고기의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아 동체착륙을 했음에도 감속에 실패한 것이 대형참사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문제는 ‘왜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사고 조사반은 “랜딩 기어가 고장 나면 자동으로 하던가 또는 수동으로 하던가 방법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왜 안 펴졌는지에 대한 원인 조사는 정확한 FDR 분석을 통해서 규명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항공기는 비상 착륙 때 무게와 화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통상 남은 연료를 버린다. “착륙 전에 왜 남은 항공유를 버리지 않았는가?”하는 점이 의문점으로 대두됐다. 왜냐하면, 기체의 연료량을 줄였을 경우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다소 막을 수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커다란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고 여객기 보잉 737 기종은 상공에서 연료를 임의로 버릴 수 있는 연료방출(Fuel Dumping)기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비상시에는 계속 같은 구간을 회전하면서 자연스레 연료를 소모해야만 한다.



남가주호남향우회 사무실에 마련한 무안공항 사고 희생자 추모 헌화대

보잉(B) 737기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가 에어버스(A) 330기종 등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고는 국내에서 일어난 항공기 사고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인명 피해를 기록했다. 이전까지 인명 피해가 가장 컸던 사고는 1993년 7월26일 발생한 아시아나 여객기 해남 추락 사고로 탑승객 66명이 숨지고 44명이 다쳤다. 또한, 테러나 납치 등이 아닌 사고로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여객기 사고는 1997년 괌 국제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이다. 괌 공항 활주로를 바라보며 착륙을 시도하던 중 언덕에 충돌하면서 228명이 사망했다.

한편 남가주호남향우회는 추모 기간 동안 향우회 사무실에 마련한 무안공항 사고 희생자 추모헌화대를 마련하고 추모객들을 맞이하였다. 남가주호남향우회는 “앞으로 블랙박스의 분석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겠지만, 2025년 새해를 앞두고 발생한 참사에서 사고 피해자들의 영혼의 영면과 남겨진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드리며, 정치권에서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UGN복음방송

www.iugn.net

4055 Wilshire Blvd. #352
Los Angeles, CA 90010
213-700-2891



College Prep Portfolio & Consulting INART

www.inarteducation.com

Main Office	323-889-9900
Main Branch	213-808-9481
La Crescenta	818-488-4385
The Source OC	213-364-6640

<사설>

진리와 정의가 시대 정신을 이끌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하고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해야 한다”
“악을 보고 침묵하는 것이 악이다”**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는 ‘진리’를 추구한다. 진리(Truth)는 진실(reality) 또는 진짜(genuine)와 관련된 것으로서, 사전적 의미는 “참된 이치 또는 참된道理”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진리’를 구약에서는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하나님’(신32:4), 신약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요14:6)라고 이해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정의와 공의의 실현을 의미한다.

높은 단계의 안정된 사회는 진리와 정의가 시대정신을 이끄는 사회이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일부 보수 정치권과 기독교계가 천민자본주의와 기복주의 신앙의 공생을 위해 결탁하고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상식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혼돈을 넘어 마치 암흑시대로 회귀한 듯한 듯하다. 역사는 흔히 중세를 가리켜 암흑시대라고 부른다. 인류사에서 문화가 쇠퇴한 시기를 가리키는 이 표현은, 정치와 종교가 인류문화에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결과로 귀결된다.

한국교회는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당시부터 정교유착에 의한 보수화가 강력하게 진행되었다. 월남자 한경직 목사는 이승만과 동조하여 ‘진보는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관변단체인 ‘서북청년회(단)와 ‘대한반공청년단’을 구성하여 보도연맹사건, 제주4.3사건 등을 통해 테러와 부정선거, 학살과 약탈 행위를 조장하였다.

5.16 군사반란이 일어나자 김준곤 목

사는 박정희를 위한 국가조찬기도회를 열고 “군사혁명이 성공한 이유는 하나님이 혁명을 성공시킨 것이다”라며 축복하였다. 그는 유신이 선포되자 “10월 유신은 실로 세계 정신사적 새 물결을 만들고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성서적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국가폭력으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위한 기도회에서는, 전두환을 여호수아에 비교하며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직책을 맡아 사회악을 제거하고 정화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축복하였다.

한경직, 조용기, 김장환 목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대성회’라는 집회를 갖고 5.18민주화운동을 좌익운동으로 규정하였다. 한경직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조직하여 ‘비상구국기도회’를 주도하며 독재정권을 비호하였다.

일명 뽀스 목사 전광훈은 한기총을 접수하고 극렬한 선동으로 ‘태극기부대’를 이끌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님 께짝 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여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한심한 지경에 이른 것이 한국교회의 현주소이다.

한술 더 떠 이제는 이단과 사이비, 역술인과 주술에 휘둘리다가 총칼로 위협하며 국가 변란에 준한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을 교회가 호위하겠다고 나서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더군다나 ‘적반하장’ 민주시민과 의회주의 정치인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

옛날에 한 도적놈이 도둑질을 하다가

발각되자, 오히려 도둑맞은 사람을 몽둥이로 때리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오히려 당당하게 큰소리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 주기철 목사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고 반대운동을 하여 네 차례나 구속되었지만 굴하지 않았고, 조선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로부터 파면당하였으나,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다가 일제로부터 1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순교하였다.

히틀러의 광기에 저항했던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하고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해야 한다. 악을 보고 침묵하는 게 악이다”고 하였으며, 교회의 공적인 사명을 강조하고 정의를 실천하다 순교하였다.

맹자는 ‘의’를 ‘수오지심(羞惡之心)’, 즉 “내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남의 잘못을 미워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정의하였다.

일제 강점기를 ‘식민지근대화론’으로 분칠하고, 반민주 세력인 독재정권을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희석하며, 군사독재시대를 ‘산업화 시대’로 포장하여 면죄부를 주려는 뉴라이트의 영향력이 사라져야 사회가 바르게 선다.

군사 반란으로 시민들이 죽어가고, 검찰이 무도하게 법을 집행하고, 역술인들과 이단들이 국정에 관여해도 침묵하는 교회에 과연 진리와 정의가 존재하며 시대정신을 이끌 수 있을까?

MZ세대는 눈에 보이는 사실을 보편적 사고로 보지 않는 기성세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은 교회에서 사라진 진리와 정의와 공의를 찾으려고 세상으로 뛰쳐나갔다.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는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의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독일 민족을 대표해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 사죄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

회와 인권센터는 '제주4.3역사 정의와 화해를 위한 기도회'에서 "우리 안에 무서운 폭력성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사죄합니다. 십자가 아래 화해의 여정에 무릎을 꿇고 참여합니다"며 기도하였다.

종교와 정치, 교회와 국가는 긴장 관계에 있어야 한다. 교조적인 사고에 빠지면 정치와 영합하게 되고 교회는 타락한다. 국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면 또한 국가 지도자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

어야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며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정의(Justice)는 공적이며 법적인 덕목이고, 공의(Righteousness)는 공적이며 사회적인 덕목이다. 과거 한국교회를 대표하였던 목사들의 과오를 대신하여 현재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목사들이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속죄할 때 교회 안에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흑암을 비추는 빛이 되어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진리와 정의가 시대 정신을 이끌 수 있게 될 것이다.

〈편집장 Joshua Chung〉

**과거 한국교회를 대표하였던 목사들의 과오를 대신하여
현재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목사들이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세계선교사연합회 임마누엘 부흥운동 선언

2025년에 새롭게 맞이하는 시대의 전환은 인간 생존과 생태계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 금세기에 이르러 유럽과 미국 그리고 한국의 교회는 급격하게 쇠락하고,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오히려 역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인들이 한때는 영적 목마름으로 여러 교회를 쇼핑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지금은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남가주에 80%의 한인교회가 미자립 교회이며, 이 교회들은 대다수가 5년 안에 폐쇄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고, 무임 목사의 숫자는 증가할 것이다. 영적 혼란의 시대를 관통하는 심령의 부흥과 교회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

는 때이다.

미국의 역사에 나타난 부흥운동은 네 차례의 대각성운동이다. 제1차 대각성운동은 식민지 시절 조지 휫필드와 존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는 미국의 독립과 공화주의의 발전을 가져왔다.

제2차 대각성운동은 찰스 피니가 주도하였고, 미국이 독립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민주주의의 진보를 가져왔으며 노예제도 폐지운동을 촉발하였다.

제3차 대각성운동은 드와이트 무디와 같은 부흥사가 활동하며, 성결운동, 나사렛운동, 오순절운동 등이 활발하였다.

제4차는 대각성운동은 빌리 그레이엄

이 활발히 대중집회를 하던 시대이다.

임마누엘 부흥운동은 '영적 세계' 현실 세계' 그리고 '가상의 세계'에서 까지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부흥에 동참하는 운동이다.

임마누엘 부흥운동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의 주권'과 찰스 피니의 '성령의 역사', 유니버설 처치의 '영혼 관리'를 아우르는 '메시아적 선교의 삶'을 표방한다.

임마누엘 부흥운동은 세계선교사연합회를 중심으로 전개하며, '메시아적 선교의 삶'을 실천하기 위하여 '생활 선교'와 '공동체 선교'를 실행한다.

임마누엘 부흥운동은 심령부흥과 생활 부흥을 위하여 매 주일(월 4회) 오후 4시 임마누엘대학교 강당에서 연합집회를 갖는다. (문의:213-559-7500)



경산한의료병원
원장 유재규
축
신
년
213-505-6747
3030 W. Olympic Blvd. #202
Los Angeles, CA 90020



벤자민건축기술학교
교장 모종태 장로
축
신
년
213-909-2005
3400 W 6th St #200
Los Angeles, CA 90020

멕시코 선교 현장 멕시코칼리 김용인 선교사를 찾아서...

김용인 선교사는 27년 전 멕시코 바하 켈리포니아주 멕시코칼리에서 선교를 시작하였다. 미국의 칼렉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곳은 인구 100만 명에 육박하는 빈민가가 많은 도시이다. 선교지를 방문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곳 빈민가 지역은 전기와 상하수도과 가스 시설이 매우 열악한 곳이다. 치안은 멕시코 국경도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마약과 매춘, 불법 이민 등 범죄가 일상으로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김 선교사는 그동안 이 지역에 8개 교회를 개척하고 보육원, 장애복지센터, 마약 알콜 재활원과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8개 교회는 이미 현지인 신학생을 배출하여 그들을 세우고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 선교사는 선교 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고 예수공동체 마을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8년 전부터 3에이커의 토지를 구입하고, 현재 13채의 주택과 예배당, 교육관, 식당, 진료실, 미장원, 어린이 놀이터 등을 건설하였다. 먼 거리에 있는 농수를 끌어들여서 정수 시설과 보일러를 설치하여 냉온수 문제도 해결하고 변기를 설치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예수공동체 마을에서 약 2마일 떨어진 곳에는 농장을 일구어 대추야자를 심고 청계 사업도 시작하였다.

그러나 고난도 있었다. 지역에는 마켓 같은 시설이 없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생활관을 새로 건축 중에 있었다. 그런데 완공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30분 만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 수년 동안 지역민들이 꿈꿔왔고 성도들의 정성이 깃든 시설이 완공을 앞두고 자취를 감추었으니 상

실감과 미안함은 이루 말할 수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선교회는 활발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여러 종류의 운동회와 게임, 연합 여성교회 수련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 합동 결혼식을 가졌으며, 최근 신학교에서는 7명의 신학생과 8명의 대학원 졸업식도 있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다는 김용인 선교사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쉽지가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탄자니아 허은, 윤정혜 선교사의 사진으로 보는 선교 현장



탄자니아 한인교회 건축



예수마을교회 설립



예수마을학교 설립



장애우 생활 자립을 위한 농장 조성



장애우 생활 자립을 위한 목자 조성



예수마을 기증

101 베스트 레스토랑 가이드 10년 연속 선정된 '소반' 박영희 대표의 간증

LA 타임즈가 선정하는 '101 베스트 레스토랑 가이드'에 10년 연속 선정된 한 식당 '소반'은 이제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을 올리며 주류사회에서 인정한 한인 타운에서 가장 성공한 식당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소반'의 박영희 대표는 멕시코 선교에서 수중에 가진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다 써버리고 LA로 돌아왔다. 그 당시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하게 됐는데, 남편은 겨우 9백 불을 가지고 있었고 박 대표는 3천 불 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결혼한 후에 남편은 한 달 반 동안 3번이나 직장을 옮기는 등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박대표는 "내가 남자를 잘못 만났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주님 저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남편은 남의 밑에서 일할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주방장인 제 남편과 함께 운영할 식당 하나만 내려 주십시오."하고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를 마치고 교회에서 나왔는데, 바깥 벤치에 전 소반 식당의 주인이 앉아

있었다. 놀랍게도 전 주인은 박 대표에게 식당 인수를 요청했고, 박 대표와 남편은 우여곡절 끝에 자금을 구해서 식당을 인수하게 되었다. 기도한대로 하나님께서 부부가 운영할 수 있는 식당을 내려 주신 것이다. 이때 박 대표 부부는 다른 식당의 오너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반 식당을 내려 주신 것은 돈을 벌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음식은 생명을 살리는 일과 같은 것이고, 주님의 뜻은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믿고, 돈에 구애받지 않고 최고의 음식으로 사람들을 대접하는데 힘썼다.

처음에는 식당이 잘되지 않았지만, 박대표는 "이 식당은 주님이 주신 커다란 선물이니 효소를 만들어 발효 식품을 직접 담궈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밀고 나갔다. 주방장인 남편과 박대표의 고집스러운 손맛과 집에서 담군 효소, 직접 키운 올라닉 채소를 재료로 만든 건강한 메뉴는 손님들에게 대환영을 받았다.

"하나님께서서는 두 개의 주머니를 주시는데, 하나는 나를 위해 다른 하나는 남을 위해 쓰라고 주신다"고 생각한 박대표는 식당에서 번 돈을 선교에 쓰고, 집을 장만하는 일, 딸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일들을 차례 차례 기도로 하나님께 간곡히 구했다.

박대표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닿았고, 박대표는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하며, 남편에게 "여보, 우리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 주님, 저희에게 미리 천국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이제 박대표는 딸들과 함께 '한식 세계화'를 위해 다운타운의 미술관 스타 식당의 셰프들에게 한식을 직접 대접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주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고 구한 결과, 박대표는 식당이 성공하고 시골에 큰 저택을 갖게 되고, 소반 식당을 딸들에게 물려주는 세대교체까지 이루게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왔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심을 그동안 살아 온 삶을 통해 절절히 체험했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에 무한한 감사 올린다고 덧붙였다.

소 반(한식당)

대표 박 영 희

323-935-9106

400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어느 유명한 대학의 철학 시간에 있었던 일화이다. 신의 존재에 대한 여러 역사적 사상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쉬는 시간이 되어 잠시 교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학생 중 하나가 교단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칠판에 이렇게 적었다. 'God is nowhere'(신은 어디에도 없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교단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앞에 나간 학생이 써놓은 마지막 단어를 지우고 두 단어로 나누어서 이렇게 고쳐 썼다. 'God is now here'(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이 글을 읽는 모든 학생들은 기막힌 반전에 모두가 감탄하며 박수를 쳤다.

시 53: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시 53:1) 한다고 하였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어리석다는 것은 지적으로 미련하고, 종교적으로 무지하며, 성품 적으로는 잔인한 자를 일컫는 말이다.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패한 본성이 거들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있다. 누구인가? 거듭난 자이다. '거듭나다'는 뜻은 '위로부터 태어나다'는 뜻이다.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죄인의 영적 생명이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난 자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1:13)라고 말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이라고 한다. 새로운 피조물은 만물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의지로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말한다.

거듭남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을 때 가능하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죽음, 부활, 재림, 최후 심판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그분에게로 전환하여 전인격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돌보심 아래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심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이해력이 결여된 짐승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짐승 같다고 말한 것은 그들은 부패하여 기질상 가증한 악을 행하는데 주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 짐승 같은 사람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며 죄인 된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시 49:20,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벳선교회 대표 홍성관 목사〉

해돋이 앞에서

석정희

어둠 사르고
한낮의 별로 떠서
그들을 지우는 태양이여 솟아라
공활한 하늘 위에 오직 하나
동해에 떠서 서해로 지고
한라에 솟아 백두에 잠기며
오대양 육대주를 밝히는 해야 솟아라
너와라면 간난이 두려우랴
바다에선 이름없는 바위섬까지
산이라면 작은 풀꽃까지 감싸는
벽찬 가슴으로 우리 함께 가자
모진 세월에도 등글게 끓는 빛
질은 구름 뚫어 살을 펴고
우리 꿈꾸는 내일을 안고 가자
거친 바람 뿌리 흔든들 겁나랴
네 빛이면 바람도 잠잠하여
의연하게 선 소나무 볼게다
눈을 감고 귀를 막아도
저 구르는 소리, 비치는 빛
웅장하고 황홀하게 해야 솟아라
새벽을 열고 내미는 빛 우리 함께
큰 바다 된바람에도 뜻을 올리게
이글이글 타는 맑게 씻은 해야 솟아라
이윽고 눅눅하던 슬픔도
빼 쫓시던 아픔도
그 빛 앞에 고퍡이 사라지듯
고난 물리칠
곱게 씻은 태양이여 솟아라
터질듯 부풀은 가슴으로 널 맞을
맑고 고운 해야 솟아라.



석정희 시인

인류 역사상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단연코 '성경'이다. 그 다음으로 꾸준히 사람들에게 읽혀오는 책은 바로 '17세기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영국인 존 번연(John Bunyan 1628- 1688)의 '천로역정'이다. 이 책은 350년이 지난 지금에도 현대인들의 영적인 성숙에 자양분이 되는 도서로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필독서로 알려져 있다.

저자인 존 번연은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땀쟁이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워 땀쟁이가 되서 '무학의 촌민'으로 어린 시절을 보낸다. 그 당시 영국에서는 청교도 혁명이 일어 났지만, 곧 왕당파가 우세해지면서 '성공회'를 국교로 정하고 청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이에 평신도 설교자 였던 존 번연은 감옥에 갇혀 12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수감기간 동안에 '천로역정'이라는 주옥같은 책을 펴냈다.

'천로역정'은 구원을 갈망하는 한 크리스천이 자신의 옛 삶을 정리하고 길을 떠나 갖가지 위험과 환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천국 문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 우화적으로 그려낸 소설이다. 그 줄거리는 멸망의 거리에서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던 한 남자(크리스천)가 어떤 책(성경)을 읽게 되고 자기가 '죄의 짐'을 매고 있고, 그 도시는 '멸망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느 날 '전도자'가 찾아와 "좁은 문"으로 가면 살 길이 있다고 해서, 크리스천은 '우유부단'과 길을 떠나 '낙심의 늪'을 거쳐 '시내산'에 갔다가 '시온산'을 다시 찾아가

천로역정

고 '구원'이라는 담장길을 지나 십자가를 바라보자 자기가 짊어지고 있던 등의 짐이 저절로 굴러 떨어지게 된다.

그 때 세 천사들이 나타나 그에게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 주고 두루마리를 주었다. 그 후 길에서 그는 '우매', '나태', '무모'를 지나쳐 가고 '허례'와 '위선'도 만났다. '곤경의 기슭'에 도달하여 그곳에는 쉬운 셋길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허례'와 '위선'은 셋길로 가다가 파멸에 떨어지고, 크리스천은 힘들게 '곤경의 언덕'을 올라가 그만 잠이 들어 거기서 그는 소중한 두루마리를 떨어뜨렸고, 한참 가다가 두루마리를 잃은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서 찾은 후, 어느새 '아름다움의 궁전'에 도착했다.

그 후에 그는 '성실'을 만나 '허영의 도시'에 도착한다. 이 도시에는 1년 내내 '허영의 장'이라는 장이 서는데 거기서는 집, 토지, 지위, 명예, 진주, 보석 등 온갖 종류의 허영이 매매되고 있었다. 거기서 '성실'은 죽임을 당하고 크리스천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후, 다시 길을 떠난다.

그는 '희망'을 만나 길을 걷다가 여러 사람들(이기, 탐욕, 구두쇠 등)과 만나 토론하며 '생명수의 강'에 도달 하였다. 그 후 길을 잘못 들어 거인 '절망'이 사다. 그러나 '약속'이라는 열쇠를 찾아 그곳을 탈출, '환락산'에 이르러 환대를 받은 후



미혹의 땅에 이르게 된다. 잠시 신앙의 의혹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무사히 그곳을 통과하여 '뿔라'(결혼한 여자)의 나라에 이르고 빛나는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천국으로 들어간다.

천로역정 제1부는 여기서 끝나고 제2부에는 크리스천의 아내, 크리스티아나와 그의 자녀들이 순례길을 떠나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처음 그들은 크리스천의 순례를 반대했으나 그가 죽은 후, 회심하여 온 식구가 다 그의 뒤를 밟기로 하고 모두 천국에 입성하는 것으로 소설은 막을 내린다.

천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은 사탄의 속성을 지닌 사람들과 선한 속성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저자는 우회적으로 비유법을 써서 인간의 '오욕칠정' 그 이상의 속성들과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의 혹독한 영적 싸움을 그대로 옮겨 놓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을 그리고 있다.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 즉 시내산(율법)이 아닌 시온산(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을 이 책은 말해준다.



KEVIN H. JANG
A Law Corporation

대표 케빈장 변호사

213-221-1188
3435 Wilshire Bl. #2300
Los Angeles, CA 9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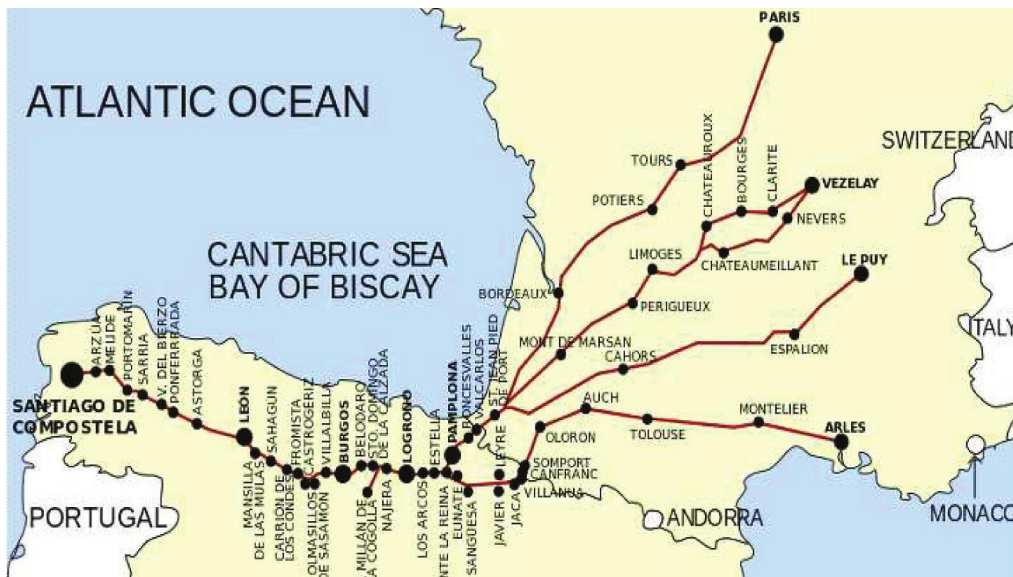


CHARLES JEONG, CPA

대표 찰스 정 회계사

213-221-4113
3255 Wilshire Bl. #1717
Los Angeles, CA 90010

산티아고 순례길



‘순례’란 신앙 행위의 일환으로 종교상의 성지등을 찾아 다니며 참배하는 여행을 의미한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기독교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최고의 성지 순례 코스로 많은 사람들이 묵상하면서 순례길을 걷고 신앙의 참 의미나 삶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기회로 삼고 있다.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레저나 관광 목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고, 800km나 되는 길을 걸으며 친목을 다지고 내적인 평화를 찾는 느낌이 강하다.

‘산티아고’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대(大) 야고보’를 말한다. ‘야고보’의 스페인어식 발음이 티아고(Tiago), 성(聖)을 뜻하는 San을 붙인 것이 ‘San Tiago’ 즉 ‘산티아고’이다. ‘산티아고’의 정식 명칭은 Santiago de Compostela로서 스페인 북부의 갈리시아 지방에 있는 도시로 야고보의 무덤 위에 만들어진 ‘산티아고 대성당’으로도 유명하다.

순례길의 역사는 예수의 12제자 중 야고보가 스페인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걸었던 길이며, 이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 오자 당시 헤롯왕에게 참수를 당하여 그 시신을 야고보의 제자들이 수습하여

돌로 만든 배에 띄어 보낸 것이 바다를 흘러 스페인 갈리시아 지방까지 떠내려와 이베리아반도 갈리시아 지방에 도착했고, 토착민 지배자의 시험에 통과한 후 제자들은 야고보의 유해를 제대로 매장하고 갖가지 이적을 행해 로마인들과 토착민들을 개종하는 데 힘을 쏟았다.

세월이 흘러 8세기경, 지나가던 주민들이 밤길을 걷다가 밤하늘을 비추어아 할 별빛들이 구름지의 들판을 맴돌면서 춤을 추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곳을 조사하다 야고보의 무덤을 발견하면서 이 지역을 ‘빛나는 별 들판의 산티아고’(Santiago de Compostela)라 부르면서 성지로 추앙받게 되었다.

산티아고 순례길의 출발점은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계인 생장 피에 드 포르(Saint-Jean-Pied-de-Port)에서 종착지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테라 대성당에 도착하는 도보순례이다. 산티아고 순례길 코스 종류는 프랑스 길(Camino Frances), 포르투갈 길(Camino Portugues), 은의 길(Via de la Plata), 북쪽 길(Camino del Norte)로 4가지 코스로 나뉘어 있다.

산티아고의 길이는 순례자의 길 산티



아고의 길(1993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은 생장~산티아고까지 총 800km다. 완주하는 데 한 달, 길게는 40일 정도 예상하면 된다. 하루에 약 25~30km씩 걷는다고 해도 한 달이 걸리는 거리다. 따라서 자신의 체력, 날씨, 주변 경치 감상이나 유적 방문을 위한 시간 등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단 순례의 주요 증거물 중 하나인 순례 여권을 사려면(대개 2~3유로 정도) 순례가 시작되는 지점의 성당이나 순례자 사무소에 가야 한다. 이게 있어야 공·사립으로 운영하는 순례자 숙소인 알베르게(Albergue: 스페인어로 호스텔)에 묵을 수 있으며, 각 숙소나 성당이나 사무소에서 ‘세요’(Sello: 도장, 스탬프)를 충실히 찍어 나중에 도착했을 때 순례의 증거를 입증할 수 있다.

한편, 2021년 6월 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한-스페인 관광산업 원탁회의에서 ‘산티아고 순례길’과 ‘제주 올레길’의 1km 내외 특정 구간에 상호 상징구간을 만들기로 논의했다는 점도 특이한 사실이다.

2025 비트코인 전망

세계 최대 비트코인 주체는 연방정부 지난해 비트코인 683,000개 기관이 매입

트럼프의 '친 가상화폐 정책'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트럼프 트레이딩' 효과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대 이상으로 치솟았다가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2025년에 금리를 인상시키겠다고 발표하자, 다시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지지부진한 상태로 10만 달러대 아래로 떨어지는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

비트코인이란 분산된 P2P(동등계층간 통신망) 기반 디지털 화폐로 중앙 당국이나 중개인 없이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상화폐를 말한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공공 거래 장부인 '블록체인'(Blockchain)을 공유한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의 거래를 시간순으로 공개적으로 기록하는 디지털 장부를 말한다. 이 장부는 처리된 모든 거래를 기록하여 사용자의 컴퓨터가 각 거래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누구나 특수 하드웨어의 컴퓨팅 성능을 사용하여 거래를 처리하고 이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종종 '마이닝' (Mining) 이라고 한다. 마이닝(채굴)은 거래 반전에 대비하여 비트코인 거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고 시스



템에 새로운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프로세스이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주체는 연방정부다. 보유한 비트코인만 20만 개로 현재 가격으로 약 210억 달러에 해당한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2021년 2월 당시 15억 달러를 투자해 5만 7,000달러 대의 비트코인을 사들였다. 그해 4월 보유분의 10%를 처분했지만, 여전히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테슬라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2025년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은 우선, 비관론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친 가상화폐 정책'이 실현되지 않고, 양적 완화로 미국 연방제도준비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글

로벌 경제에는 먹구름이 끼고 덩달아 비트코인의 가격도 8만 불대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가 비트코인의 4번째 반감기이고, 과거 전례를 살펴볼 때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씩 줄어드는 반감기를 거치게 되면 '반감기 효과'로 비트코인의 값이 상승하게 되므로 현 조정기를 거쳐 도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20만 불대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또한, '비트코인 큰 손'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2024년 한해 동안 기관이 68만 3,000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전문가들은 "2025년 비트코인의 기관 유입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정책 변화를 가져오면서 더 많은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의 한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추세는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블룸버그의 다른 전문가는 경고성 발언으로 "주식 시장 침체와 같은 시장 충격의 순간에는 일시적으로 8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등 2025년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투자 전망은 낙관론과 비관론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다.



K·HISTORY

대표 김 환 단

213-500-4987

매주 수요일 6pm 역사 강좌



미주탈북민협회

대표 전 혜 정

213-247-3444

505 S Wilton Pl #118
Los Angeles, CA 90020

탄소 중립

기후 위기에 대응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Net-Zero)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주로 CO₂-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를 흡수해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 (Zero)’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탄소 중립은 넷제로(Net-Zero)라고도 불리운다.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에 대응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자 의지를 담은 개념이다.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에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면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의 기반이 된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와 공장에서 화석연료를 태우는 등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등을 확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로 1.5℃ 지구온난화에서 10만 5,000개의 생물 종 가운데, 곤충의 6%, 식물의 8%, 그리고 척추동물의 4%가, 그 이상으로 2℃ 지구온난화에서는 곤충의 18%, 식물의 16%, 그리고 척추동물의 8%가 기후적으로 결정된 지리적 범위의 절반 이상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2℃에 비해 1.5℃로 온난화를 낮추게 되면 인간과 결부된 삶의 영역, 신선한 물, 해양 생태계 등에 대한 위험을 더 낮출 수 있다. 지구 온난화를 2℃에 비해 1.5℃로 억제하는 것은 해양 온도 상승을 경감할 수 있으며 해양의 산성화를 방지하고 해양의 산소 수준을 경감할 수 있다.

2050 넷제로를 위한 각국의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로에너지 빌딩을 포함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다.

둘째,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에서 탈 탄소 전력의 사용을 극대화한다.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2050년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약 20%는 원자력 에너지로 공급한다. 특히 전력공급에서는 2050년까지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원자력의 비중은 15%를 유지할 예정이다.



셋째, 깨끗하고 안전하며 연결된 이동수단을 구축한다.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전동열차 등의 보급을 통해 수송부문의 탈탄소화를 도모한다. 장거리 수송을 위해서는 철도 화물망을 구축하고 도로운송은 지양하며 수송기반기술(예, 연료전지기반의 전기자동차 및 선박)에 집중해야 한다.

기후위기에서 살아 남으려면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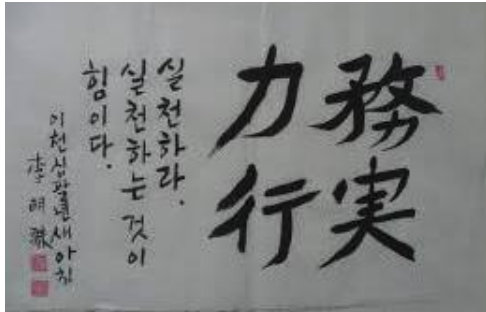
범인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 연료를 주여 나가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RE100은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이다. RE100에 가입하는 글로벌 기업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우리나라 기업도 가입하기 시작한 것은 글로벌 기후위기 시대에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글로벌 수출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어 지기 때문이다. 2024년 10월 전세계적으로 433개의 기업이 RE100에 가입했고, 우리나라는 3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기술, 인간의 의지, 그리고 협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합쳐질 때 우리는 반드시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를 해 나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이라는

파라다이스를 우리 인류 최초의 서식지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아담과 이브는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그 후 우리 지구를 물려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구를 기후위기로부터 보호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지상낙원으로 다시 가꾸어 갈 청지기의 임무를 더욱 철저히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편집부장 Sophia Kim〉

도산 정신 2 '역행'



안창호 선생은 1878년 11월 9일 출생해 1938년 3월 10일에 생을 마감한 글로벌 교육개혁 운동가이면서 '민족 개조론'을 외친 애국 계몽운동가였다. 캘리포니아의 리버사이드(Riverside)시는 안창호 선생의 동상을 건립했고, 메인 고속도로의 이름까지 도산 안창호 메모리얼 인터체인지(Dosan Ahn Chang Ho Memorial Interchange)라고 개명할 정도로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높이 사고 있다.

리버사이드는 100년 전 한인들의 중심지였고, 도산 프로젝트인 '파차파 캠프'를 건설한 곳이기도 하다. '파차파 캠프'는 미국 최초로 한인 동네(타운)가 생긴 곳이다. '파차파 캠프'는 초기 미주 한

인 독립운동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도산은 우리 근세사에서 우리 민족이 갑론을박 당파 싸움만 하고, 직업의 귀천을 가리며 육체노동을 천하게 여겨 1905년 '공립협회'가 리버사이드 한인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고 1906년에는 '신민회'가 발기되었다. 또 '대한민국민회' 지방회가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북미총회'가 개최된 곳도 이 곳 리버사이드의 '파차파 캠프'이다.

오늘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4대 정신('무실', '역행', '충의', '용감') 중 두 번째 시간인 '역행' 정신을 알아보자. '역행'(일하자)은 "빈 말보다 실천에 앞장서며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정신"이다. '역행'의 뜻은 말보다 몸소 행하기를 힘쓰자는 것이다. 역행의 반대는 '공리공론'이다.

말로만 떠들고 손으로 일하기를 꺼리며 몸소 행하기를 게을리하는 사상과 생활의 악한 습관에서 나라의 위축과 쇠퇴가 왔다고 보았다. 그는 그러한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를 저마다 버리고 책임전

가의 악한 풍조를 없애자고 이렇게 말하였다. 도산은 항상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자. 너도 주인이 되고 나도 주인이 되자. 공(功)은 우리에게 돌리고 책임은 내게로 돌리자. 이 길 밖에 우리 민족을 구원할 길이 없다고 믿자."라고 외치고 다녔다고 한다.

도산의 역행 정신은 큰 목적이 눈앞에 실현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에 할 수 있는 일은 오늘에 하자는 것이다. 자기의 나쁜 습관을 개조하여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하는 일, 허위를 버리는 일, 자기 가정을 지키는 일, 동지를 구하는 일 등 오늘에 하기로 결심한 일은 반드시 오늘에 실천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부터, 작은 일부터, 쉬운 일부터, 가까운 일부터 꾸준히 행하며, 우리 민족이 모두 함께 실천하는 민족이 되자는 것이다. 도산은 우리 민족 정신의 개혁은 '역행'을 통해 실체에 힘쓰고 온 힘을 다해 행하되 이론보다는 행동하고 실천하여 내실을 다지는 것부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참으로 도산은 민족의 사표(師表)로써 위대한 스승이요, 지도자라 아니 할 수 없다.

“시니어 메디케어, 제게 맡겨주세요” 한인타운 최고 허만진 보험인

‘골드웰보험사’ 허만진 부사장은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에 한인 시니어들을 위해 자신에게 꼭 맞고 차별화된 보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보험 신청이 처음이거나 기존에 보험에 가입했지만, 혜택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도와드린다. 보험 가입 후 에이전트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으니 능력 있는 에이전트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허 부사장은 10년째 보험 서비스를 하고 있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베테랑 에이전트다.

골드웰보험사 베테랑 허만진 부사장
시간 장소 구분 없이 항상 연결



메디케어 관련 가입 및 변경 상담
치과·한방 등 다양한 플랜 설명

올해 65세가 되는 1960년생 시니어를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보험을 통해 한방 침술 서비스와 일반 건강 용품(OTC)이 최대 보장되고 고급 보청기가 보장된다. 올해는 현금카드, 그로서리 카드 등 혜택이 추가로 늘어남으로써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보험 가입을 통해 병원과 약국 등 필요한 관련 정보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다. 늘 고객들로부터 수많은 문의가 끊이지 않는 그의 성공 비결은 바로 건강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친절이다.

도산 Legacy 운동 (도산신보)

도산 Legacy 운동은 미주한인들(Korean Community)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다가 받은 '거룩한 선교이야기사'의 사명이다. 매일 '거룩한 사명'의 '도산신보' 란에 그의 정신계승 운동을 펼쳐나가겠다.

● 거짓망국론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야,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말아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

● 무실역행(참되게 힘써 실천함)

“정직과 성실이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 실력양성론/교육입국론

“교육으로 스스로의 실력을 갖추는 때 개인이든 나라이든 스스로 자립한다.”

● 대공주의

“공과 사를 가르시오. 공과 사중 한쪽을 굳이 희생해야된다면, 사를 희생해야 합니다.”
“개체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개체를 위하여.”

거룩한 선교이야기 청소년 기자단 모집 (HMS Youth Reporter Club)

2025년 봄학기

고등학생 1기 / 중학생 1기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학교, 봉사단체, 커뮤니티, 사회적 이슈 등 자신의 관심 분야 기사를 작성하여,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증대시키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그 기초를 만들어 드립니다.

작성한 기사나 논평, 칼럼 등은 선별하여 월간 '거룩한 사명'지에 영문으로 게재되며, 웹사이트에는 즉시 올려 시사성을 보장합니다.

수습기자 교육과 저널리즘 강의 등은 전문 교수가 학교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수료증과 기자증을 발부하게 됩니다.

대학과도 연계하여 필요한 과목도 미리 들을 수 있게 합니다.

문의 213.559.7500

경배와 찬양팀 및 성가단 모집

인간 생존과 생태계의 위기, AI의 등장과 혁신적 과학의 발전, 그리고 문화적 변화로 영적 혼란의 시대가 도래한 이때, 심령의 부흥과 교회 개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세계선교사연합회'는 영적세계, 현실세계, 가상세계에서까지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부흥에 동참하는 '임마누엘 부흥운동'을 시작합니다.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생활 선교와 공동체 선교에 헌신할 '경배와 찬양팀'과 '임마누엘 성가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요강]

1. 세례 받고 선교에 사명이 있으신 분
2. '임마누엘부흥운동'에 동참하실 분
3. '경배와 찬양팀' 경험이 있으신 분
4. '교회 성가대' 경험이 있으신 분
5. 매주 연습 또는 연주가 가능하신 분

세계선교사연합회

3400 W. 6th St. #202, LA, CA 90020

Tel) 213-559-7500, 213-507-9920

